

憤世而謂舌底에 無奇士라호노라 自遠而觀호면世之稱奇士者는能以一身으로 廓清四海之風雲호고使人으로 快靚天日而共享至樂호可也 一 優踰賢聖之堂軒호야 啓沃萬世之群蒙호可也 一 며 次而扶輪大雅호야 再振頽風호亦可也 一 尼安能以喋喋喃喃호야 徒事綺語之爲리호是故로 解之者 一 曰必有警世而謂舌底에 無奇士라호노라 然雖如是나 將無錯解而使一世之士로 默歎呆呆然호야 閉爾口、藏爾舌호야 歸作巖下枯禪然後에 可乎哉호야 切勿以辭害志焉耳니라

休暇의 感想

金 菊 初

七月六日은 우리學校에서 夏期休暇를 命호다 學生一同을 三學年敎室에 會集호고 校長이 出席호야 우리의 對호야 諸君이 工夫에 勞力호기를 數三朔에 必是支離호生 覺도 업지아니 할것이 며 또 이러한 極熱에 勞力工夫호면 腦髓에 如何호關係가 업지아니 할듯호야 一 個月의 休暇를 命호니 各已還鄉호야 身體에 注意호것이 며 또 休暇라고 放心치말고 工夫에 注意호라호다 其前에 冬期休暇이라든지 春期休暇에 當호야 校長이 이러한 說明이 잇슬씨에는 참반갑고 질거우며 數百斤의 荷物을 버셔노듯호야 清涼散을 먹은듯호더니 今年夏期休暇에는 이와 返對로도 勿히 悲慘호고 不快호生覺이

문득난다 昨年夏期休暇에 校長이 이와 又치 說明호든 光景이 어제 又치 生覺난다 그런 디 언니듯가을, 겨울, 봄이 다 지니가고 또 夏期休暇이라 말이야 1 歲月이 빠르고 無常호줄은 恒常말호고 恒常生覺호는 바지만은 今日을 當호는 더구나 더 深刻호겟다 이러한 感想을 따러서 또 一 理想이 난다 至今은 暑症을 이기지 못호야 休暇를 호얏지 만은 一 陣秋風이 玉宇에 吹動호고 旅雁은 高飛호야 隨陽호고 籬菊은 秀綻호야 凌霜호겟이 며 萬里淨空에 金風이 蕭颯호야 吾人의 精神을 生動케 호씨가 電光호차 變호는 것이 다 아아 참歲月이 빠르도다 어니 歲半이 曠호지니가고 나을마되지아니 할면을 하느다 가고 싶호기오리로다 이제부터 五個月만 지니가면 나히 할살다호고 다른히 가오리로 다 다시 못오리로다 二九四六年(佛紀)나 의 一生다 시 못만나리로다 그러나 歲月이 빠 르물따라서 吾人의 事業도 그와 又치 變호리 進步되얏스면 쉽다 그것도 그렇치안코 私情 업호 無常殺鬼가 青年으로호야 耆老人되게 호실선이 오 黑髮호야 金白髮되게 호실선이 다 이런 感想저런 感想호다 보니 또호理想이 솟는다 이것은 더구나 더 深刻호겟이 다 우리 佛敎社會에 對호야 特別호理想이 솟는다 一般同胞도 다 보고다 아는바라다 시如何 호말이라도 依賴호것이 업슬듯호다 그러나 深刻호感想을 이기지 못호야 호말벗치고 저호다 安만流水와 又치 變호는 光陰일지라도 一年의 許多호光陰을 無滋味호고 無義味 호게 지닐것은 우리 佛敎라고 할듯호다 여러 分生覺호야 보시요 그간 우리社會에 教育 機關이라든지 其他如何호事爲에 進步되고 組織되게이 무엇이뇨? 나 도 佛敎社會에

「分子라 이리호 深刻호 感想이 아니날수 업다 조금더 호면 落淚호 겠다 中央學林의란
 誌을 設立호지 五個星霜을 방구잇고 地方學林의란誌을 設立호지호 不過二個星霜의
 지만은 經營호지호 이 것도 五個星霜을 지너다 다른 如何호 稟本이라든지 그런것은
 말호 經營호지호 第一緊要호 教科書가 充分치 못호다 一年의 定期總會라고 三十本
 山住持諸氏는 幾十圓의 金額을 消耗호고 京城에 會集호야 如何호 公議호호지 참부
 르겟다 休暇의 感想이란 問題下에 이리호 感想을 말호는것은 違題인듯호다 그러나
 深刻히 感想될것은 光陰이 빠른것 (끝)

夢 中 語

聲 律 生

△人天의 師를 我의 師로 호며 四生의 父를 我의 父로 호며 貴호은 王公貴人의 師가
 될만호고 富호은 天下叢林을 家로 호야 親戚墳墓의 累를 絕호며 毀形守節의
 概를 抱호은 我의 初志 其何에 在호이런가 一月이 上方에懸호고 香의 楊畔에 銷
 호제

正當恁麼時호야 深深深思一思호니 臆라 我의 半生이 已夢裏過로다
 △牛羊道邊에 一尺穉松 牧豎見日日刈來刈去호고 牛羊兒日日踏來踏去호야 의

릿릿經歲經年에 杳然히 自立의 力이 無호고 生長을 期키 難호듯 此中에서 能
 히 千尋의 高를 夢想호고 風霜의 嚴을 凌駕호미 此一 我의 初年의 立志이며 此一
 我의 初年의 理想이러니 今也 毫釐之差에 千里既謬호야 墮千仞坑 落萬丈塹
 호니 離山의 虎와 出水의 龍이 是我今日之好影像이로다

△一領衣 一口鉢과 一卷經 一枝筇으로 江北江南에 明師를 訪호며 高岑幽谷에
 草庵을 構호은 其志一小事호야도 一大事를 究호며 其願이 淺호야도 三惡道를 濟
 코저호이러니 機는 已逸호고 事는 已去호야 九雲의 夢은 我의 前路를 迷케호
 며 大幻의 術은 我가 外道에 惑케되야 末稍에 還作畫虎不成之狗子漢이로다
 嗚呼라 五十年에 지나지 못호는 人生의 한 夢場 그一 反覆參差호미 엇지 이렇
 듯甚哉아

△塵世에 足跡을 印호고 宦海에 舟楫을 放호야 慘風에 磨호바되며 悲雨에 洗호바
 되며 怒濤에 捲호바되며 狂瀾에 飄호바되야 雖然 五欲의 蜜이 甘호며 火宅의
 苦一安호니 我의 盡底의 墮落에는 我도 또호 呆然히 失聲長笑로다

△美玉은 雖泥中에 埋호야도 其質이 不變호고 志士一 雖困窮에 處호되 其節
 을 不改호나니 我一 비록美玉이 아니며 志士가 아니나 過去에 金文을 誦호였스
 며 聖言을 學호였나니 엇지 이醜惡호 俗界에서 漸盡泯滅호而己哉아

△나의 가장 사랑호며 나의 가장 공경호는 法侶諸君 나의 가장 속 그속의 북고 드